

2019년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근촌 백관수 선생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말합니다
지난 100년은 뜨거웠다고,
함께 할 100년은 더 희망찬 거라고

정의로운 고장, 고창군에서
선열들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억하고
고귀한 정신과 희망을 전해주기 위한
행사를 개최합니다.



김승옥 기적비(고창여고내)

- “우리가 지킨 100년의 역사, 희망의 시작” 3.1운동 100주년 기념식
2019. 3. 1.(금) 10:00 동리국악당
- 3.1운동 재현 거리 퍼레이드
2019. 3. 1.(금) 11:10 동리국악당 → 고창군청광장
- 3.1운동 100주년 기념 - 동리국악 테마공연 “봄 그리고 다시 봄”
2019. 3. 1.(금) 14:30 동리국악당

동생명문화 살려 다시 치초는

한반도 첫 수도



국민이 지킨 역사
국민이 이끄는 나라

[의향고창] 대한독립의 열기로 뜨거웠던 100년 전의 고창군 성내를 시작으로 무장, 고창을 곳곳으로 만세운동 퍼져나가

100년 전 고창군의 2~3월은 뜨거웠다. 고창군의 만세운동은 정읍에 인접한 성내면에서부터 시작됐다. 성내면 월산리에 살고 있던 청년 이종철과 학생 이대성, 이종주, 유판술 등은 만세운동에 앞장 설 것을 결의하고 선언서 등사와 취지서를 작성했다.

3월10일 밤, 그들은 이종주 집에 비밀리 모여, 다수의 종이 태극기를 만들어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붙이거나 세워뒀다. 새벽에는 '대한독립(大韓獨立)'과 '독립(獨立)'이라고 크게 쓴 종이2개를 장대에 붙여 성내면 면사무소 구내 공터에 세워 놓았다.

아침이 되고 사람들이 모여들자 선언서와 격려문을 나눠주기 시작했다. 13일 학교 앞 운동장으로 모이라는 전단도 뿌렸다. 하지만 결국 이 사실이 흥덕면주재소에 알려지고 이종철 등 4명이 검거돼 성내면 거사계획은 좌절됐다.

매칠 후 무장에서도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그 중에도 읍내의 김영완은 고종 황제 국장을 앞두고, 서울에 올라갔다가 3월1일 서울에서 만세운동에 참여하고 고향으로 내려와서 유지 이용옥, 김용표, 김상수, 이준규, 김진호, 박흥선, 오태근, 박흥수 등과 함께 만세운동을 결정하고 15일 무장을 장날을 이용해 거사를 치르기 시작했다.

드디어 3월15일, 장꾼들이 많이 모이기를 기다리던 이용옥·김용표 등은 미리 등사해 두었던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군중들에게 나눠줬다. 김영완은 군중들

앞에 나가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대한독립만세'를 소리 높여 부르자 군중들이 모두 환호성을 지르며 따라나섰다.

이용옥·김용표 등은 태극기를 높이 들고 선두에 서서 군중을 지휘하며 대열을 지어 시위행진을 시작했다. 만세의 물결은 남문을 지나 면사무소와 주재소 앞으로 나가며 기세 드높게 행진했다.

고창읍에서도 21일 만세시위가 벌어졌다. 이보다 앞서 읍내의 김승옥·오동균 등은 독립선언서·국민휘보(國民彙報)·조선독립가 등의 문서를 얻어 등사판에 복사한 뒤 고창군내 유지와 학생들에게 연락해 19일 고창읍 장날에 만세운동을 열기로 했다.

그러나 거사 계획이 사전에 노출돼 당일 진행은 취소됐다. 하루를 건너 21일, 다시 일부의 학생들과 모여 오전 11시경 청년·학생 등 100여 명이 만세를 부르며 고창읍내 큰 거리를 행진했다. 그 중에도 김승옥은 선두에 서서 독립운동 연설을 하고, 오동균은 선언서·조선독립가 등을 배포하며 군중들을 격려해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를 받았다.

도중에 적 경찰대의 저지도 있었다. 하지만 군중들은 굽히지 않고 더욱 기세를 올리며 군청으로 밀려가 군수와 군 직원들에게 만세운동에 참가하도록 강력히 요구해 형세가 더욱 커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결국, 적 폭력에 의해 오동균·김승옥·김창규 등 10여 명이 붙잡히고, 군중은 해산됐다.

25일에도 고창군내 여러 곳에서 산발적인 만세운동이 있었으며, 28일에는 다시 흥덕면 흥덕리(興德里)에서 집집에 태극기가 게양된 사실이 있었는데, 적측에게 태극기는 탈취당하고 학생 3명이 붙잡혔다.

당시 학생들은 재판에서 "조선인으로서 조선 독립만세를 부르는 것은 조선인의 본무(本務)이다. 이것이 불의의 일도 불량의 일도 아닌데 어째서 처벌을 받는다는 말이나?"고 항쟁하였지만 모두 기각당하고 말았다.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제3권·삼일운동사(하) 2장 전북서부지방 제5절 고창군 편—

고창군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

① 고창군 독립운동 파리장서 기념비



고창군 고창읍 석교리 고창여고 오른쪽 새마을공원, 작고 이따금 공원에 걸코 작지 않은 비석이 우뚝 서 있다.

정사각기둥 형태의 비석 앞면에는 '한국유림독립운동파리장서비(韓國儒林獨立運動巴里長書碑)'라고 한자로 새겨져 있고, 나머지 세 면에는 파리장서 한문 원문과 유림 대표로 서명한 137인의 명단이 있다. 기단의 네 면에는 파리장서 한글 번역문이 새겨져 있다. 오른쪽의 비석에는 '파리장서 독립운동가 추모의 글'이, 왼쪽의 비석에는 '기념비 건립 취지문'이 옮겨져 있다.

'파리장서 독립운동(파리장서사건)'은 전국의 유림 대표들이 일제의 무단 식민통치를 규탄하고 조선의 독립을 호소하는 장문(한자 2674자)의 청원서를 '프랑스 파리평화회의' 대표단에 배포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유림들은 '붓의 투쟁'으로 불리우는 파리장서에서 "우리는 차라리 자진하여 죽을지언정 맹세코 일본의 노예는 되지 않을 것"이라며 3·1운동의 독립선언서보다 더욱 선포하게 자주독립 의지를 만천하에 나타냈다.

137명의 서명인 중 호남 출신으로는 10명이 참여했으며 이중 고석진, 고예진, 고순진, 고제만 선생 등 4명이 고창 출신이다. 이들은 파리장서 독립운동에 앞서 1905년 말 일본의 강압으로 을사늑약이 체결돼 사실상 민족 주권을 강탈당했을 때 목숨을 걸고 스승인 면암 최익현 선생을 모시고 의병투쟁을 주도하다 옥고를 치렀다.

또 1912년부터 1914년까지 유림의 전국 비밀결사조직인 독립의군부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다 또다시 옥고를 치렀다. 이어 파리장서 독립운동에 참여하고 이후에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군자금을 지원하거나 고창의 방호정사(도동서원)에서 후학들을 양성하며 독립운동을 펼쳤다.

이에 고창군은 2014년 3월 29일 기념비를 세우고, 유림의 선비정신과 구국(救國)정신을 전하고, 애국충절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우리가 지킨 100년의 역사, 희망의 시작

2019. 3. 1.(금) 10시~11시40분

일제강점기 항일 독립운동이 활발했던 의향의 고장 고창군이
기미년 3·1운동 당시 목숨을 걸고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했던 이 땅의 애국선열지자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우리가 지킨 100년의 역사, 희망의 시작' 행사를 개최합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그날의 합성을 재현해 독립정신을 기억하고
함께 화합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1부 기념식 동리국악당, 10시~11시10분

—식전공연(판소리, 시낭송), 국민의례, 3.1운동 경과보고, 독립선언문 낭독 등

· 2부 만세행진 거리 퍼레이드 11시10분~11시40분



※ 동리국악당 앞 광장(출발) →
고창읍성 앞 사거리 → 고창교 →
고창읍사무소 앞 → 군청 앞 오거리
→ 군청 광장(도착)



도시브랜드와 한반도 첫수도

"한반도 첫 수도, 고창 무슨 뜻인지 알려 주세요"
"한반도 첫 수도 고창, 신선해요! 참 좋아요!"

기업의 브랜드는 '다른 것과 비교되는 가치'다. 브랜드는 비싼 가격으로만 만들어지지 않는다. 브랜드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브랜드 자체에 대한 스토리가 있어야 한다.

도시도 마찬가지다. 도시브랜드는 도시 마크, 캐릭터, 슬로건, 명소명, 축제 브랜드, 공동 브랜드(혹은 특산물) 등을 다 포함한 총체적인 상징체계라고 정의된다.

특히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당 도시의 자연, 역사, 문화, 경험 등의 자원을 가운데 그 도시만의 특징적인 정체성을 찾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즉, 다른 도시와 비교될 수 있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하는 셈이다.

고창의 경우 고인돌이 상징인 마크, 모로모로 캐릭터, 슬로건, 유적지 등에서 하나의 큰 줄기를 찾을 수 있다. 수많은 유적·유물을 통해 국내외 어느 곳 보다 차별화된 스토리가 있고, 나름의 정체성을 형성해 왔다.

최근 고창군에 민선 7기 고창군의 도시 브랜드인 '한반도 첫 수도, 고창'에 대한 문기가 잇따르고 있다. 고창, 전복을 넘어 수도권 일반 소비자들도 전화와 SNS메시지를 통해 의미를 묻고, 참신함을 칭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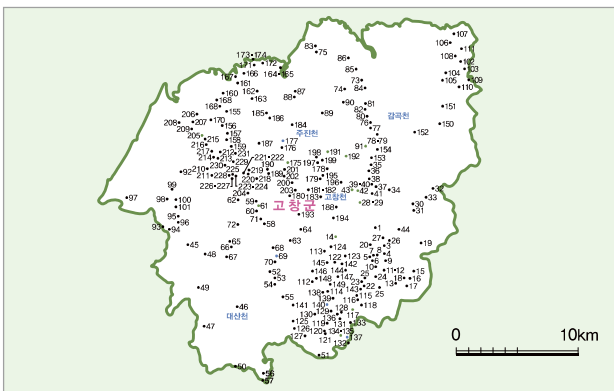
고창군수는 "고창군이 '한반도 첫 수도, 고창' 도시브랜드로 전국 소비자들로부터 최고의 사랑과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며 "평이근민의 자세로 변함없이 군민의 눈높이에서 군민을 섬기는 행정으로 군민 속으로 들어가 군민 모두가 행복한 고창을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한반도 첫 수도 고창 연표

감수 : 이병렬(지리학박사, 고창문화연구원)

한 반 도 사	고창의 지역사(사건과 인물)
구석기 (70만년전)	5백만년~1만년, 공주석장리유적, 웅기굴포리유적, 연천전곡리유적, 단양수양개선사유적, 땃석기-타제석기
신석기 (BC8000)	1만년~, 식량생산, 정착생활 빗살무늬토기, 간석기
청동기	BC2333년 고조선건국(비파형동검) BC2000~1500년 청동기시대
고조선	BC400년경 철기시대 BC108년 고조선멸망, 한사군설치 삼한시대
삼국시대	BC57년 박혁거세 신라 건국 BC37년 주몽 고구려 건국 BC18년 온조 백제 건국 42년 김수로 가야 건국 475년 백제문주왕 웅진 천도 538년 백제성왕 사비 천도 660년 백제 멸망 668년 고구려 멸망
	5만년전 고수 부곡리 증산: 중기구석기
	영광과 부안의 해안가 조개더미에서 빗살무늬토기 상당수 출토, 부안면 봉암리 패총
	집단거주, 민무늬토기, 방직기술, 고인돌축조 죽림, 삼강, 윤곡, 상금, 계산, 삼인, 암치 등 2000기 이상의 고인돌-정치세력화 흥덕, 대산, 아산, 고창, 고수 등 주거지 발견 대산성남리: 웅관묘, 무문토기, 굴림주거지 등 웅관묘: 고창신월, 도산, 신림송골, 아산봉덕, 성내 신대, 대산 덕천과 성남
	마한: 모로비리국(아산 태봉산성), 일리국(대산 성남, 성남리 토성), 고비리국(성내 성안과 백강산), 신소도국(흥덕) 설 등 주구묘와 주구토광묘(도랑)-백제이전 마한묘제 아산봉덕, 만동, 고수예지, 흥덕신덕, 대산성남, 광대동 주거지, 고분, 패총, 토기편 발견 돌제축조(고부~죽포)
	4세기 근초고왕 마한병합 모랑부리현: 모양성(토성)-서산산성 상철현: 흥덕, 오대리토성-배동산성 송미지현: 하고리 고현-고산산성 상로현: 장사현, 장사산성 공음칠암리 전방후원분(5세기) 고창은곡리: 한반도 최초 백제계 도요지 5세기 고창 동림리고분군(마한-백제) 6세기 부곡리 연동 횡혈식석실분 축조

이래서 고창이 한반도 첫 수도!



[고창군 소재 지석묘 분포도(수계표)]

5만년 이전부터 고창이 한반도 중심으로 발돋움 고창 전지역에 널리 분포한 청동기 '고인돌' 과 마한·백제 '고분군'

'수도'란 한 나라의 중앙 정부가 있는 도시를 말한다. 그러나 수렵과 채집의 시대에도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라는 것이 존재했고, 결국 그 안에서도 이른바 '잘나가는' 지역이 있었다. 이처럼 사회적 영향력이 집중된 곳, 바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 하는 '수도'다.

고창은 선사시대 유적인 중기구석기시대의 주먹도끼 등이 출토된 지역(고창 고수면 부곡리 증산)이다. 고창이 한반도 중심으로 발돋움하기 시작한 것은 선사시대인 5만년 이전부터임을 알 수 있다.

청동기 시대 거석문화인 고인돌은 고창 지역 전체에 널리 분포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밀집도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특히 고인돌은 강력한 부족장의 무덤이나 천제를 지내는 제단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면서 역시나 고창 땅은 예부터 힘의 중심 안에 있었다.

뿐만 아니라 아산면 일원의 만동유적과 봉덕리의 고분군은 마한과 백제시대의 전통성을 대표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대외교류도 확인 할 수 있는 중요한 유물이다.

삼한시대의 유적으로 추정되는 토성은 고수면 예지리, 성내면 월성리, 대산면 성남리 등에 다양하게 존재했고, 공음면 칠암리 고분군은 일본과의 대외교류도 가능해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이처럼 다양하고 오랜 유물유적이 산재한다는 것은 당시의 한반도에서 가장 큰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경제적 풍요를 누렸다는 증표다. 결국 삼국시대 이후 고려와 조선이후 현재까지의 시간보다 몇 배나 더 긴 시간 동안, 즉 선사시대부터 마한시대까지 고창지역이 한반도 땅의 중심지였다.

앞으로 '한반도 첫수도' 고창군은 고인돌문화의 중심지로서의 성격을 규명하고, 마한시대 모로비리국, 신소도국 등의 실체를 확정하는 등의 노력을 해나갈 계획이다.

고창군의회 2019년 상반기 회기운영 계획

“현장에서 군민과 소통하며 함께하는 의회”



고창군의회(의장 조규철)는 “현장에서 군민과 소통하며 함께하는 의회”라는 의정구호 아래, “실천하는 의정 찾아가는 의회, 화합하고 신뢰받는 책임의회 구현, 함께 꿈꾸고 더불어 이뤄 가는 동행의회”를 의정방침으로 내세워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현장에서 군민과 소통하며 함께하는 의회상의 확립을 통하여 군민의 뜻을 바르게 대변하는 책임의회를 구현할 것을 다짐했다. 지금부터 군민의 대의기관인 고창군의회의 한 차원 발전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2019년도 상반기 회기운영을 살펴 볼 계획이다.

▶ 과·담당관·소별 주요업무보고 ▶

과·담당관·소별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집행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2019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사업현황 및 추진계획, 기대 효과 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실현가능성을 점검하여, 고창군 행정에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하여 더 나은 군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군정질문 등을 통해서 군정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여 주요업무보고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개선하도록 유도해 정책 대안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쳐하고자 한다.

▶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

연2회에 걸쳐 집행부가 추진하는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꼼꼼히 점검하여 개선안을 제공하는 한편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경청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군정의 효율적 통제와 재정민주화 실현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금년 상반기에는 4월중(예정)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2019년도 고창군의 중점 추진사업의 진행상황과 문제점, 개선방향 등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검토하고 이를 집행기관과 함께 뜻을 모아 보다 나은 군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고창군의회 2월중 의원간담회 개최



고창군 의회(의장 조규철)는 지난 18일 2월중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의원간담회에서는 군 현안업무 청취, 의정관련 협의 등이 이루어졌다.

조규철 의장은 “의원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현안사업 및 주요시책에 대한 사전협의를 통한 발전방안 및 대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의회에서는 비회기 기간에도 연속성 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지역현안에 대한 집행기관과의 상시 대화체계를 유지해 의원들이 집행부의 정책방향을 이해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준비된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매월 1회 의원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제262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일 정	차수	장 소	의 사 일 정
개 회			
2. 20.(수) 10:00	1차	본회의장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5.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실령의 건
11:00		상 입 위	1. 의안 심사
14:00		본회의장	6. 2019년도 과·담당관·소별 주요업무보고 → 기획예산담당관, 농수축산경제국(농생명지원과)
2. 21.(목) 10:00	2차	본회의장	1. 2019년도 과·담당관·소별 주요업무보고 → 농수축산경제국(축산과), 문화복지환경국(문화예술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2. 22.(금) 10:00	3차	본회의장	1. 2019년도 과·담당관·소별 주요업무보고 → 농수축산경제국(농어촌식품과, 해양수산과, 상생경제과, 재난안전과)
2,23.(토)~2,24.(일)	휴회		자료수집 및 정리
2. 25.(월) 10:00	4차	본회의장	1. 2019년도 과·담당관·소별 주요업무보고 → 농수축산경제국(건설도시과), 문화복지환경국(문화유산과, 종합민원과, 생애환경과)
2. 26.(화) 10:00	5차	본회의장	1. 2019년도 과·담당관·소별 주요업무보고 → 문화복지환경국(산림공원과, 재무과, 물력행정과) 농업기술센터, 체육청소년사업소
2. 27.(수) 10:00	6차	본회의장	1. 2019년도 과·담당관·소별 주요업무보고 →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시설사업소 2. 휴회의 건
14:00	휴회	예 결 위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기획예산담당관, 농수축산경제국(농생명지원과, 농어촌식품과, 해양수산과, 축산과)
2. 28.(목) 10:00	휴회	예 결 위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농수축산경제국(상생경제과, 재난안전과, 건설도시과), 문화복지환경국(문화예술과, 문화유산과, 사회복지과, 종합민원과, 생애환경과, 산림공원과, 재무과, 물력행정과)
3. 1.(금)~3. 3.(일)	휴회		자료수집 및 정리
3. 4.(월) 10:00	휴회	예 결 위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체육청소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시설사업소
14:00			1. 계수 조정
3. 5.(화) 10:00	휴회	예 결 위	2. 계수 조정
3. 6.(수) 10:00	7차	본회의장	1. 의안 심의 2. 2019년도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 심의
폐 회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고창군의회 제262회 임시회 개최



고창군의회(의장 조규철)는 제262회 임시회를 2월 20일 개최하여 3월 6일까지 15일 간의 일정으로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 한 해 동안 집행부가 추진해 나갈 주요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해당 과·담당관·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고창군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9건의 의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해 5명의 결산 검사위원을 선임함으로써 향후 결산검사에 신중을 기할 계획이다.

조규철 의장은 “이번 임시회를 통해 군정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정책 대안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정 활동을 펼쳐 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군의회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고창군의회(의장 조규철)는 29일 기해년 새해 설 명절을 맞이하여 고창 전통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장기적인 지역경기 침체와 농산물 가격 불안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했다. 장보기 행사에 참여한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 30여명은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해 명절 성수품을 구입하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상인들을 격려했다.

또한 의원들은 전통시장 이용 홍보캠페인을 벌이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고창군민과 함께하는 ‘전북도민체전 성공기원’

1월30일 문화의전당서 제56회 도민체전 D-100일 성공기원 행사 열어

“한반도 첫 수도 고창의 위상을 전 도민에게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삼아야”



‘한반도 첫 수도’ 고창에서 열리는 도민체전을 백일 앞두고, 고창군이 성공기원 행사를 열고 분위기를 끌어 올리기에 나섰다.

고 창 군 은 지 난 1 월 3 0 일 고창문화의전당에서 도민체전 조직위 212명과 체육인, 군민 등 700여명이 참석해 ‘제56회 전라북도민체전 D-100 성공기원’ 행사를 열었다.

행사는 조직위원 위촉장 수여, 결의문 낭독, 대회 홍보영상 상영, 대회 카운터기 제막, 성공개회 기원을 위한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다.

‘제56회 전라북도민체전대회’는 5월10~12일 사흘간 고창공설운동장과 종목별 경기장에서 38개 종목에 도내 14개 시·군선수단 1만 여명이 참가하는 전북도의 가장 큰 체육대회다. 군은 대회 열기 확산을 위해 군내 9개 읍·면, 33개 경기장에서 분산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고창군은 제38회(2001년)와 제47회(2010년) 도민체육대회를 열었고, 올해 제56회(2019년) 대회를 유치하면서 도내 8개 군 단위 중 3번의 대회를 치르는 유일한 곳이다.

현재 고창군은 완벽한 경기운영을 위해 도비 11억원을 투입해 공설운동장 외관 리모델링(관중석 설치, 성화대 보수, 샤워실 개보수, 주차장 정비 등)을 마무리하고, 종목별 경기장을 새 단장 했다. 또 연맹과 사전 협의를 통한 경기력 향상은 물론, 종목별 공인 작업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한반도 첫 수도’ 고창의 이미지와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고창을 표현한 개·폐회식 등 특색 있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도민체육대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분야별 자원봉사자를 2월부터 모집한다.

이날 고창군수는 “이번 대회를 통해 선사시대부터 가장 찬란한 문명을 꽃피운 ‘한반도 첫 수도 고창’의 위상을 전 도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며 “향후 도민체전의 모범답안이 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 준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고창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농식품 소스 생산지원센터 개관

최첨단 설비 갖추고 고창특산물 활용한 소스·양념장 개발
“고창군 농생명 식품산업 살리는 중추역할 해낼 것”

고창 (재)베리&바이오식품 연구소가 지난 1월25일 고창군 농가와 식품업체 대표 200여명을 초청해 ‘농식품 소스 생산지원센터 개관식’을 열었다.

연구소는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 지역 행복 생활 권역 연계 협력 사업 베리굿소스산업 육성사업에 선정된 뒤, 연구소 내에 국비 등 9억5600만원을 들여 ‘농식품 소스 생산지원 센터’를 구축했다. 이번 소스생산지원센터 개관으로 그간 고창 농특산물의 가공 제품이 획일적인 음료와 분말 등에 국한됐던 것에서 벗어나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부가가치 상품개발에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385㎡(116평) 규모의 소스생산지원센터는 최첨단 설비(수조세척기, 씨분리, 썬 배합탱크, 액상소스 배합탱크, 발효 탱크 등)를 갖춰 고창군의 다양한 농특산물을 활용한 소스 가공 제품을 만들 수 있다.

시설 이용도 고창군민 누구나 소정의 이용료를 부담하면 손쉽게 가공 제품을 생산해 판매할 수 있다. 특히 향후 센터설비를 활용한 관내 식품업체의 소스제품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소스원료 지역 농산물의 계약재배도 가능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

연구소는 지역 농민과 식품업체에게 열린 공간을 추구하며, 기술개발, 생산, 홍보(유통), 판매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전국최대규모 고창 오거리 당산제 열려 민속큰잔치 전통문화 즐기며 화합

“올해도 마을의 무사안녕 비읍니다”

정월대보름을 맞아 고창군에서 ‘제38회 고창오거리당산제’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고 창 오 거 리 당 산 제 와 민속큰잔치는 지난 2월18일 고창읍 중앙당산 일대와 고창읍성 주변 야외공연장에서 주민 등 2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행사는 오후 7시 당산제를 시작으로, 연등놀이, 줄예맞이, 줄다리기, 소망 달집태우기 순으로 이어졌다. 이튿날(19일) 고창실내체육관에선 고창읍민들이 각 마을별로 참여한 가운데 율놀이, 투호놀이, 제기차기, 줄다리기 등 대보름 민속놀이 한마당이 펼쳐졌다.

행사에 참여한 주민들은 “마을의 무사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당산제와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민속 큰잔치와 같은 행사들이 풍성하게 열려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고창의 소중한 문화자원이 되고 있고 한바탕 즐거운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오거리당산제보존회 설태종 회장은 “앞으로도 풍수신앙과 마을 공동체신앙, 민속놀이가 어우러진 향토문화유산이자 지역축제인 고창오거리당산제와 민속큰잔치를 더욱 계승, 발전시켜 지역주민의 화합을 다지고 향토문화 보존에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현장 맞춤형 일자리 연결”

고용노동부 공모 ‘로컬 JOB(일자리) 센터 구축사업’ 선정 전문인력 5명 배치해 구직자와 구인난 겪는 지역기업 연결

고창군이 지난 1월25일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로컬 JOB센터 구축사업에 선정됐다.

로컬 JOB센터는 고용복지센터가 없는 농촌지역에 지역 저점형 일자리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이 핵심이다. 올해 3억6000만원을 투자해 센터에 5명의 전문 컨설턴트 인력을 배치하고 일자리 소외지역과 기업을 중심으로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고창의 겨울은 따뜻했네’ ... 사랑의 온도탑 124도 달성

고창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희망2019 나눔캠페인 이웃돕기 성금모금 마감
73일간 3억원 넘는 성금 모여... 기관·단체부터 일반 군민모두 한마음으로 울력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
결국 밭이 온통 / 꽃밭이 되는 것 / 아니겠느냐
-나하나 꽃피어中, 조동화-

참 고맙습니다.

모두 어렵고 힘든 겨울이었지만

한분 한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고창군 사랑의온도가 목표를 초과 달성 했습니다.

고창군은 군민들의 소중한 성금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며

‘나눔과 봉사 기부천국 고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창군이 연말연시를 맞아 ‘희망2019 나눔캠페인(2018년 11월20일~2019년 1월31일, 73일간)’을 펼친 결과, 사랑의 온도탑이 당초 목표보다 높은 124도를 기록했다. 고창군 최종 집계에 따르면 연말연시 이웃돕기 성금모금액은 총 3억5871만865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목표액 2억8988만7000원 보다 7000만원 이상 더 모금됐다. 성금은 현금기부 3억2000만원, 물품기부 3800만원 등이다.

고등학교 봉사 동아리를 비롯해 포상금을 전액기부한 자동차 영업사원, 익명의 천사, 매년 100만원 이상 기부하는 나눔리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각계각층의 성금전달이 잇따르면서 사랑의온도가 100도를 훌쩍 넘었다. 고창군 공직자들도 나눔과 기부에 앞장서며 780여 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기탁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전달돼 소외계층의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명절위문금 등으로 지원된다.

고창군수는 “어려운 경기에도 이웃 사랑에 많은 관심을 주신 단체, 기업 및 군민분들의 사랑으로 목표액을 달성하게 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 고창에서도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희망2019 나눔캠페인 기간 중 기관·단체·개인 성금 기부자

고창군산림조합·산림공원과(50만원), (주)하임(1000만원), 기해회(대표 김대호, 100만원), 씨앗골식당(대표 표주원, 100만원), 고창군체육농업창업지원센터교육생(34만원), 골프존카운티선운(대표 나성주, 100만원), 석정레저주식회사(대표 김해성, 100만원), (유)흥덕기업(대표 김정숙, 100만원),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대표 손형식, 300만원), 유한회사 파란건설(대표 한희춘, 100만원), 고창군사랑의열매봉사단(대표 이혜숙, 20만원), (주)대한고속(대표 김재두, 500만원), (사)대한한돈협회고창군지부(대표 임한성, 500만원), 대한전문건설협회전북도회(대표 김태경, 300만원), 고창동천장어양식어업협회(대표 오교만, 500만원), 세영개발주(대표 최제필, 500만원), 고창커뮤니티(유운중, 50만원), 십자의원(대표 류제은, 220만원), (주)남바이오(대표 김정완, 500만원), 선연기프트(대표 이지선, 250만원), 고창군미술생협(대표 이용호, 300만원), 전북고창지역건축사회(400만원), (주)리더스산업(대표 유근수, 600만원), 고창군독거노인생활관리사(51만9000원), 강은숙(10만5600원), 선진산업(대표 장동신, 1000만원), 고창군영세상인회(대표 박종태, 200만원), 고창경제살리기여성회(대표 주현주, 100만원), (주)유천엔바이오(대표 문석준, 500만원), 영농법인 황도배가창정고구마연협(라삼수, 500만원), 주식회사 대일하이텍(대표 박상규, 300만원), 나우건축사사무소(대표 김성규, 200만원), 국순당 고창명주(대표 김영동, 500만원), 고창여고드림북(10만원), (사)고창농약보존회(대표 이명훈, 313만5000원), 신진떡볶이(대표 조영숙, 20만원), 한누리건설(30만원), 선운양민(500만원),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1600만원), 박형운(20만원), 월드전북(100만원), 홍수진(100만원), 태산산업(대표 김소연, 500만원), 신흥건설(주)(대표 이태만, 200만원), 고창군문화예술협의회(150만원), 흥연암산도회(500만원), 한국외식업중앙회고창군지부(100만원), 중앙관(대표 이선덕 50만원), 고수교회(대표 김성수, 300만원), 토우회(대표 이종연, 200만원), 고창군양돈퇴역비(대표 이찬영, 300만원), 고창군의회사무과(27만4000원), 고창여고 더불어살(2만3000원), 고인돌조경건설(대표 김경철, 100만원), 태흥축산(대표 이석주, 1000만원), 서울시니어스타워킹고창본부(대표 김성수, 300만원), 아이보리(대표 장현정, 100만원), 공무원노동조합(104만6000원), 고창라이온스클럽(대표 조재경, 200만원), 고창군산림조합(대표 김영건, 300만원), 고창군공무직노동조합(대표 김태형, 300만원), (유)미래영농조합법인(대표 구태서, 200만원), 대성전략주(권광식, 100만원), 현대자동차 고창지점(이영선 부장, 200만원), 참바다영어조합법인(연탄 3300장, 난방유 1000리터, 소화가 100개), 한돈협회 고창군지부(육류 640 kg), 남프만이불커텐(이불 20채), 전북은행고창지점(생필품 꾸러미), (주)부현대서비스(리면 200상자), 전국한우협회 고창군지부(소고기 86 kg), (주)넷솔라에너지(태양광설치 2세대)

※지역의 부족으로 읍·면 기탁자분들을 다 실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신림면 신상호씨, 직접 만든 청려장 100개 기부 화제

직접 키운 명아주로 명품 지팡이 만들어... “어르신들 장수 기원”



고창군 한 주민이 직접 키운 명아주로 지팡이 100개를 손수 만들어 지역 어르신들에게 전달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주인공 신상호(57)씨는 1월 22일 신림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직접 만든 청려장(靑藜杖) 100개를 전달했다.

신씨는 “지역내 어르신들의 장수를 바라는 마음이 지팡이를 준비하게 됐다”며 “지팡이가 거동 불편한 모든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어디서 배워 만든 것도 아닌데 그가 만든 지팡이는 아름답고 튼튼하다. 그만큼 공을 들이기 때문이다. 신씨는 평소 명아주를 1년간 정성껏

키우고 수확한 뒤, 대를 삶아 햇볕에 말리는 수고로운 작업을 마다하지 않았다. 여기에 잘 말린 명아주에 5~6차례의 옷질을 더 해 명품 지팡이를 만들어 냈다. 기탁된 지팡이는 신림면 관내 80세 이상 거동불편 어르신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용철 신림면장은 “요즘 손수 만든 지팡이를 보기 힘들게 이렇게 정성 가득한 지팡이를 받게 되어 정말 기쁘고 감사하다”며 “마을별로 지팡이가 꼭 필요한 분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창읍, 정기기부 실천하는 ‘착한가게’ 줄이어



고창읍 행정복지센터가 매일 일정액을 기부하는 착한가게 8개소에 대해 인증현판을 추가로 전달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1월 말까지 추가로 정기기부에 참여한 업체는 ▲새고창 장례식장(조미영) ▲우리자동차공업사(박영길) ▲기아 오토류 고창점(김채수) ▲분가(윤은석) ▲아이캔 어린이집(이미숙) ▲고창어린이집(강주광) ▲웃사랑 뽕태터(민경숙) ▲신도 정보통신(박희복) 등 총 8개 업체다. 현재 고창읍 정기후원자수는 정기기부 착한가게 38개소를 포함해 총 누적 70명, 월평균 기부액 174만원으로 1년이면 2088만원에 달한다.

[현장속으로] 고창군 구제역 가축방역 현장 가보니



강추위 속 손발 꽁꽁 얼지만 최후의 보루 지켜낸다는 사명감으로 일 해 “시·구제역 발 못 붙이는 한반도 첫수도 청정 고창 지켜 낼게요”

입춘은 지난 지났지만 한겨울을 최강 추위는 좀처럼 가시질 않고 있다. 지난 2월10일 오전 고창군 흥덕면 소독시설. 최저기온 -8도, 체감기온은 -10도 이하로 떨어진 혹한의 날씨 속에서도 근무자들은 축산차량 소독에 여념이 없었다.

고창과 정읍·부안을 오가는 국도와 서해안고속도로 길목에 위치한 이곳은 하루 평균 120여대의 축산관계차량이 오가는 거점세척소독시설이다. 이 곳은 AI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전복내륙지역 전파를 막는 관문의 역할도 겸하고 있다.

구제역을 비롯한 가축 전염병 방역은 차선을 가로막고 지나가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했지만, 3년 전부터 거점세척소독시설을 설치하여 축산관련업체차량들을 대상으로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대상은 소와 돼지, 닭, 오리 등을 운송하는 화물차와 사료 등 축산 관련차량이다.

이날 방역에 투입된 요원석 계장(고창부안 축협 경제사업장)은 “한파로 차량하부세척시설이 얼어붙는 등 어려움이 크다”면서도 “청정 고창과 전북지역 가축전염병 유입을 막아 지역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 줄 수 있다는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제역 등 전염병 예방에는 저온에서 효과적인 산화제 소독제에 물을 희석한 소독액을 사용하고 있다. 이를 분무기로 차량 시트에 뿌리는 동시에 분사터널에 들어간 차량 외장 등에 직접 분사하는 방식이다. 소독제는 바이러스를 제거하고 차량 이동에 따른 확산 위험을 줄인다.

고창군 대산면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들도 이날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다. 이곳 축산 농가들도 구제역 사전차단을 위해 모든 차량과 외부인의 출입을 막고 있다.

젖소 220여 마리를 키우고 있는 최모씨(62)도 구제역 확산을 우려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최씨는 전화인터뷰를 통해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매일 2~3차례 직접 축사 소독을 진행하고 있다”며 “혹시 모를 구제역 전염을 막기 위해 택배나 중국음식점 배달도 자제하고 구제역 종식 선언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은 지난 2월1일부터 기존 ‘가축방역상황실(부군수 주재)’을 군수를 본부장으로 하는 ‘가축방역대책본부’로 전환하고 매일 상황점검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고창군청 가축방역팀 박동열 팀장은 “축산농가 방문을 자제하고 축산농가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축사 내·외부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며 “축산농가는 구제역 의심증상이 발견될 경우 신속히 **군 축산과(560-2613)**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 업 탐 방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

청결원
식품

-청결원 식품 김성주 대표이사

고창군 북분자 농공단지에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이라는 슬로건을 갖고, 언제나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업이 있다.

2016년에 설립된 청결원 식품이다. 청결원 식품은 건강식품 제조회사로 양질의 제품을 생산, 제공하기 위해 열매의 재배부터 생산, 납품까지 전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청결원식품의 주요 제품은 발효농축액과 수제 쌀조청이다. 발효농축액은 아로니아 발효농축액과 황토복분자 발효 농축액이 주요 제품이다. 아로니아 발효농축액은 고창에서 재배되는 황토 아로니아 원과 만을 사용해 순도 높은 아로니아 발효 농축액을 만들고 있다. 저온숙성기법을 통해 고창 황토아로니아를 약 100일간 발효와 숙성과정을 거친다.



황토 복분자 발효농축액은 무농약 복분자 열매를 자연 발효하여 복분자 과즙과 열매가 그대로 살아있는 제품이다. 과육이 들어있어 흔들어 먹고 기호에 따라 물에 희석해 먹거나 얼음 칼데일로 먹어도 좋다. 청결원 식품의 수제 쌀조청은 단 1%의 인공 첨가물도 들어가지 않은 건강한 단맛이다. 도라지, 인진쑥, 울금, 생강, 홍도라지, 흑마늘 수제 쌀조청 등 여러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청결원식품은 HACCP인증 공장으로, 정기적인 식품제조 교육이수를 받고 올바른 방법으로 건강한 먹거리를 제조하고 있다. 또한 깨끗하고 올바른 원료만을 사용하여 모든 제품을 책임감을 가지고 만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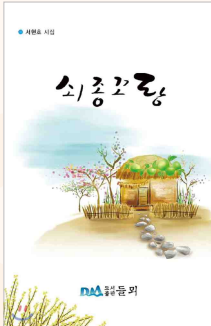
김성주 대표이사는 “고창 복분자는 하늘이 인간에게 내려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요강이 뒤집힐 정도의 강력한 힘을 낼 수 있는 온 국민의 건강식품을 공급하겠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에게 건강하고 바른 식품을 제공해 더욱 믿음을 줄 수 있는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홈페이지 : cgw.kr
TEL : 063-562-8170

고창군 사서 추천 군민과 함께 읽고 싶은 책



쇠종교랑



서현호 / 들뢰 / 2017
성호서관
811.7 서94스

서현호 작가의 시집 쇠종교랑은 소박하지만 정겨운 시어들을 사용하여 어렵지 않고 옆집 아저씨가 들려주는 것 같은 친근함이 느껴지는 시들을 수록하고 있다. 쉽게 읽히지만 깊은 여운을 남기고 오랫동안 생각할 거리들을 던져 주기도 한다. 곁에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무심히 보아 넘기던 사물들을 유심히 관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도 한다. 전문가적인 세련됨은 조금 부족할지 몰라도 그래서 더더욱 소중하고 보물 같은 지역 시인의 작품이다.

작가소개



서현호

전북 고창출생
고창북고 졸업

2017년 들뢰 문학상 수상
현)한국문학정신 고창지부장
한국문인협회 고창지부 사무국장
한국문학정신문인협회 정회원
들미문학 동인, 서해안방송 기자

[알림]

고창군일자리지원센터

취업상담 및 직업훈련을 통해 구직자와 구인업체 연결, 맞춤형 취업 지원

- 구인/구직자 개인별 상담 및 DB 구축
- 취업 알선에 따른 구인처 정보 제공
- 일자리의 상담 : 민생경제과 경제일자리팀담당(560-2365~6)

연번	업 체 명	인원	모집직종	근무조건	마감일	근무지
1	주식회사 서부현대서비스	1	경리사무원	월급 1,745,150원 주5일근무/08:30~18:00	채용시	고창읍
2	석정제자(주) 석정철호텔	1	회계사무원	연봉 2,700만원(협의가) 주6일근무/09:00~18:00	채용시	고창읍
3	주식회사 동산유지	1	생산직	시급 8,350원 주5일근무/08:00~17:00	채용시	고수면
4	생산식품	3	생산직	시급 8,350원 주5일근무/08:30~17:30 **잔업근무가능자**	채용시	고수면
5	연경전자(주)	2	생산직	시급 8,350원 주5일근무/2교대근무 1조 08:00~17:30(잔업시 19:50) 2조 19:50~(익일)08:00	채용시	고수면
6	이앤지푸드	5	생산직	시급 8,350원 주5일근무/08:30~18:00	채용시	부안면
7	이앤지푸드	2	납품 및 배송원 (1톤,3.5톤)	연봉 2,500만원~3,600만원 주5일근무/08:00~18:30 **경력2년이상**	채용시	부안면
8	주식회사 진영그린개발	1	크락사운현원	월급 270만원~300만원 주6일근무/08:00~17:30 **경력3년이상**	채용시	성내면
9	국순당 고창영주(주)	1	생산직	월급 1,745,150원 주5일근무/09:00~18:00	채용시	심원면
10	(주)하나엔텍	1	설계 및 공무직	월급 250만원 주5일근무/09:00~18:00 **초대졸이상, 경력3년이상**	채용시	아산면
11	거림건설	2	단순노무원	월급 230만원 주6일근무/08:00~18:30	채용시	아산면
12	해리콘크리트	1	단순노무원 (지게차운전)	월급 220만원 주6일근무/토요일격주근무 월-금 07:30~18:00 토 07:30~17:00 (계절에따라 변동가능)	채용시	해리면
13	해리콘크리트	1	사무직	급여 회사내규에 따름 주6일근무/토요일격주근무 월-금 07:30~18:00 토 07:30~17:00 (계절에따라 변동가능)	채용시	해리면

[안내]

고창군, 2월부터 농어촌버스 일부노선 개편

고창군 버스로 이동했던 정읍·영광 방면 일부 노선 변경

고창군 일부 농어촌 버스노선이 버스 운전자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폐지 등 조정됐다. 주요 변경 구간은 고창군 버스로 이동했던 정읍과 영광방면 노선이다. 성내면 일부 마을은 정읍으로 이동할 경우 성내면 소재지에서 정읍 시내버스로 환승해야 한다.

대산면에서 영광으로 갈 때도 기존 마을버스 노선이 폐지되고, 대산정류소에서 시외버스로 갈아타야 한다. 공음면 주민도 영광군 법성면으로 이동할 때 영광군 농어촌버스를 타게 된다.

자세한 노선 변경 내용은 고창군 농어촌버스 운수 업체인 (주)대한고속(564-3943)과 고창군청 상생경제과 교통행정팀(560-2418)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안내]

고창군, 최대 1000만원 보험금 지급하는 군민안전보험 '확대'

10종의 사고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

고창군이 각종 사고시 최소한의 위로차민인 '군민 안전보험'의 보장성을 대폭 확대한다.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등록 외국인도 포함된다. 또 개인이 가입한 타보험과 중복보장을 받을 수도 있다.

보상 종류로는 ▲스쿨존 교통사고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 ▲강도 ▲의료사고 ▲자연재해 ▲익사사고 ▲의사상자 ▲농기계사고 ▲유독성 물질사고의 사망 및 후유장애로 최대 1000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농기계사고, 익사사고, 의사상자, 유독성물질사고의 4종이 추가돼 보다 많은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보험금 청구절차는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한 때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안내]

"주차로 부담없이 마음껏 선운산 정취 즐기세요"

선운산 도립공원 주차로 전면면제
(2월12일부터)

자유로운 차량 출입에 주변 풍천장이
식당가 손님들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아름다운 선거,
튼튼한 우리 조합

2019년 3월 13일(수)

제56회 전라북도민체육대회 자원봉사자 모집

'56회 전라북도민체육대회'가 5월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고창군 일원에서 열립니다.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친절과 배려로 선수단과 관람객에게 감동서비스를 선사할 열정적인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모집기간 : 2019. 2. 7. ~ 3. 13(35일간)

■ 접수처 : 고창군자원봉사종합센터

■ 모집인원 : 410명 ※ 예비인력 포함

■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인 자로 자원봉사자 사전교육 및 도민체전기간 동안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자가 출퇴근이 가능한 자
- 모집분야와 관련하여 경험에 있는 개인, 기관, 단체 등
- 10일 이상 참여가 가능한 단체·법인·학교
-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 반드시 가입 후 신청

■ 활동분야 : 종합안내, 음료봉사, 교통봉사, 입장객 물품배부 등

■ 활동기간 : 5. 10.(금) ~ 5. 12.(일), 3일간

※ 사전경기 중독 활동기간 : 5. 4(토) ~ 5. 5(일)

■ 신청자격

- 방문·우편 :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14길 19, 복지회관내 2층(자원봉사종합센터)
- 팩 스 : 고창군자원봉사종합센터(FAX : 063-562-1600)
- 이 메 일 : kc3535@hanmail.net
- ※ 참가신청서는 고창군자원봉사종합센터 홈페이지(http://nannan.gochoang.go.kr) 또는 고창군청 홈페이지(http://www.gochoang.go.kr)에서 다운로드 사용가능
- 봉사자 교육 : 자원봉사 발대식 및 친절 교육 별도 추진 예정

